

축구는 '지성의 적' 이 아니다

지성계, 울타리밖 세계 무심하거나 외면
진정한 지성은 반사이익 구할 만큼 구차·초라하지 않아야

글_ 장원재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80년대 중반, 3S라는 약어(略語)는 대학가를 지배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였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권위적 정권이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세 가지에 드라이브를 걸어 국민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킨다는 이론. 3S를 소리 높여 힐난하던 고향의 중심에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이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스포츠 애호가이자 영화팬인 나로서는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수십 년을 두고 나름대로 애정을 바친 대상이 기껏해야 우민화의 수단일 뿐이었다니.

축구를 비난하던 목소리 어느덧 사라져

어느 날이던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복을 입고 등교했다가 그다지 곱지 않은 눈길을 감내해야 했던 적도 있다. 88 올림픽 축구 조별예선, 소련·미국과 연달아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 대표팀은 아르헨티나와 마지막 일전을 벌였다. 노수진의 골로 앞서가다 1-2로 역전패.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예상평은 일순간에 무(無)로 화하며 절망의 총량을 급격하게 늘려갔다.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던 찻집, 행인들은 이상한 사람을 보았다는 듯이 붉은색 워크앤드 티셔츠를 아래위로 훑어보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비수처럼 날리는 문장들이 귓속으로 들려오기도 했다. 대학생이 3S에 휩쓸리는 건 의식이 없다는 증거라고 했던가, 아무튼 뭐 그 비슷한 단어의 조합이었다. 그렇다. 대학생을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80년대는 확실히 축구가 지성에게 버림받은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학 캠퍼스의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몰려서, 축구는 영화와 더불어 근

근이 연명하며 숨을 이어갔다. 축구를 좋아한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받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축구에 흠뻑 빠져 있다는 걸 드러내놓고 자랑하기는 어려웠던 시절.

그때 그렇게 소리 높여 축구를 비난하던 목소리들은 2002년 어귀에 이르러 눈 녹듯 어디론가 모두 사라지고, 월드컵과 축구를 둘러싸고 역사와 사회와 문화를 탐구해보자는 논의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지성(知性)은 자고로 모든 사회현상을 끌어 앉는 법이라지만, 이 불가사의한 U턴을 앞에 두고 이문구 선생의 소설 한 대목이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필자의 잘못이 아니다. 통행금지에 걸린 사람들을 숙박업소에 안내해주는 것으로 째짤한 구전 수입을 챙기던 어느 방법대원은 통행금지 해제 직후 고향에 내려와 명절 떡을 앞에 놓고 분통을 터뜨린다. 옛그제까지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노래 부르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합창을 해대니, 도대체 시기상조와 만시지탄의 사이는 한식경이나 한나절이나.

필자가 과문한 탓임에 틀림이 없겠지만, 3S를 비난하던 목소리들 가운데 곳곳하게 월드컵을 비판하며 당초의 의견을 고수하거나, 혹은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 글을 아직까지 마주한 적이 없는 듯 하다.

거리로 나온 700만 명 vs. 700권도 팔리지 않는 책

축구와 더불어 찬반 신세이던 영화는 어느새 3S의 주범에서 벗어나 민족혼을 수호하는 문화주권의 침병으로 거듭났다. 신데렐라가 따로 없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신분상승이었다. 영화 대약진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

진정한 지성(知性)은 누군가를 적으로 돌려 반사이익을 취해야 할 만큼 구차하거나 초라하지 않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연명이 가능하다면 지성의 정의와 존재의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아야 한다.

이었을까. 우민화의 주범이라던 영화가 어떻게 민족문화의 수호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논리적·이성적으로 알려주는 글은 어디가면 볼 수 있는 걸까.

축구에게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역시 세월이 약이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나, 드디어 축구도 본류(本流)로 흘러내렸다. 월드컵을 치르면서 축구도 비로소 천덕꾸러기 신세를 벗어났던 것. 2002년 이전까지, 축구를 중요한 사회제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 한국인은 극소수였다. 축구는 그저 일개 오락이요 스포츠에 지나지 않았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국민 대다수의 성원과 지성계 종다수의 격려를 받으며 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떠올랐던 건 4년 전의 붉은 여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런데 왜 지성인들은 축구가 지성인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축구는 애당초부터 지성을 적대시하지 않았다. 지성이 축구를 적대시했거나 깎아내렸거나 어쩌면 무시해왔는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말과 글로 먹고사는 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700만이나 거리로 달려 나와 축구경기를 관전했으되 700권을 넘겨 팔린 축구책이 흔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작가나 학자들에게는 참으로 절망적이다. 그러나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과 정신의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밖의 세계에 대해서 애써 무심한 척 외면했던 것은 혹시 아닐는지.

문학판으로 확대경을 들이대면 성 안 주민의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외곽으로만 떠도는 한무더기의 SF와 추리 소설이 있고, 뿌리와 연원이 만만치 않은 무협지나 판타지도 지성계와는 몇 가닥 개인적 인연 이외에 별다른 접점을 갖지 못한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사회적 파급력과 학문대상으로서의 중요도 사이에 적지 않은 편차가 있는데, 지성은 왜 텔레비전 드라마를 진지한 연구대상으

로 생각하지 않는 걸까?

지성의 존재의미 다시 생각하는 계기되어야

축구는 지성의 적이 아니다. '세계화란 곧 축구'라는 앤터니 기든스의 말이 아니더라도, 축구가 인류 사이에서 가장 성행하는 놀이이자 제도인 이상, 축구라는 현상을 통해 문명과 역사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일은 충분한 근거와 배경을 확보한 작업일 터이다. 지성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인간만이 지닌 위대한 정신작용이다. 월드컵 시즌에 축구와 맞서며 축구 때문에 독서인구가 격감한다는 비난 혹은 체념의 눈길을 던지기 전에, 축구라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직접 뛰어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2002년을 기점으로, 한국 출판계에는 지난 50년 간 간행된 모든 축구책보다 몇 곱이나 많은 축구 서적들이 독자들에게 선을 보였다. 축구 역사를 다룬 책부터 2002년의 뒷이야기, 축구에 내재한 사회학적 분석, 나아가 축구와 경영학, 역사, 심리학의 방법론을 접목한 서적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축구에 관한 책만으로 어지간한 서가를 채울 수 있다. 진정한 지성(知性)은 누군가를 적으로 돌려 반사이익을 취해야 할 만큼 구차하거나 초라하지 않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연명이 가능하다면 지성의 정의와 존재의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아야 한다.

축구는 천 갈래 만 갈래로 뺏은 인류 마음속에 흐르는 강이다. 지성이라는 보트를 타고 이 거대한 장강을 탐험해 보자. 노를 젓든 돛을 매달고 바람을 타든, 그것은 승객 각자의 자유다. 증기선이나 호화여객선, 때로는 잠수함과 군함을 두루두루 다 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자, 이제 드디어 월드컵이다. ☞